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56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지역포커스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EU 주요국의 다랑어 수입 현황

■ EU 다랑어 어획 감소

- EU의 황다랑어 어획은 지난해부터 동인도(Eastern Indian)와 서태평양(Western Pacific)수역에서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황다랑어의 가격은 급증하고 있으며 가다랑어 가격 역시 양륙량 감소로 인하여 2006년에 톤 당 885달러에서 2007년에는 톤 당 1,075 달러로 높게 형성됨

■ EU의 다랑어 로인 수입 증가

- 프랑스에서는 다랑어 통조림 생산에 이용되는 다랑어 원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통조림 공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프랑스의 2006년 다랑어 수입은 2005년에 비해 2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기간동안 다랑어(whole tuna)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로인(loins, 필렛 반으로 나눈 형태)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동 중인 프랑스 통조림 회사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랑어 로인대사 고품질의 다랑어 상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임
- 이탈리아의 다랑어 원료 수입은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는 5만 6천 톤 가량의 다랑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임
- 아울러 다랑어 로인 역시 2006년에 4만 3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총 다랑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값으로 1999년의 47%, 2005년의 66%와 비교할 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품목임
- 또한 EU는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수출 가격이 싼 안데스 공동시장(Andean Community)에서 다랑어 로인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이탈리아 수입(다랑어 로인)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에콰도르	15.2	9.9	14.5	12.7	12.0	14.6
콜롬비아	12.6	10.8	14.7	12.8	14.3	9.7
케냐	2.3	5.7	2.9	7.0	8.1	6.7
태국	0.5	2.1	2.2	1.1	1.3	3.2
스페인	0.9	0.1	0.0	0.0	0.0	0.3
기타국	3.7	1.2	4.0	2.4	4.9	8.5
총합	35.2	29.8	38.3	36.0	40.6	43.0

- 전통적으로 고품질의 다랑어 통조림 공장이 많은 스페인은 가공을 위해서 수년간 다랑어 로인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현재 노동비 절감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가공원료로 로인을 사용하고 있음
 - 스페인은 중앙 아메리카나 안데스 공동시장 등에 다랑어 로인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현재 수입 통계상에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현재 스페인의 경우 다랑어 통조림을 위해 수입되는 다랑어 로인은 다랑어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2년도의 8%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스페인의 다랑어 로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5% 상승한 3만 7,500톤에 달하였음

【스페인 수입(다랑어 로인)】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에콰도르	4.0	6.0	19.0	7.2	8.8	16.0
엘살바도르	0.0	0.0	0.5	8.6	13.2	10.9
과테말라	0.0	0.1	0.2	4.1	6.6	2.2
포르투갈	0.1	0.3	1.4	0.5	1.2	1.4
콜롬비아	1.4	0.2	0.1	0.1	0.1	0.3
태국	0.0	0.2	1.1	0.1	1.9	0.0
코스타리카	0.4	0.3	2.3	0.4	0.0	0.0
베네주엘라	0.0	4.0	5.7	2.9	0.0	0.0
기타국	0.4	1.9	1.6	2.2	4.0	6.7
총합	6.3	13.3	31.9	26.1	35.8	37.5

■ EU의 다랑어 통조림 수요 증대

- 2006년 EU의 다랑어 통조림 수입이 늘어났는데, 주요한 공급국들은 주로 EU가 투자해서 공장을 세운 나라들임
 - 구체적으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수출을 통해 EU 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공급국들은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다랑어 통조림을 주로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음
 - 2006년 다랑어 통조림 가격이 2006년에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은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원재료의 가격 또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스페인과 영국은 EU의 다랑어 통조림 주요 소비국임
 - 스페인은 여전히 국내 통조림 공장에서 공급된 통조림에 주로 의존하는데 반해 영국은 주로 다랑어 통조림 소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다랑어 소비를 1인당 4kg(1년당)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총 수산물 소비는 20kg이므로 다랑어 소비가 총수산물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매년 13만 2,000톤 정도의 다랑어 통조림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공급국들은 세이셸, 모리셔스, 가나로 태국의 경우 자체상표를 통해 대형마트 체인에 다랑어를 공급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 공급국들 중 가나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나로부터의 수입의 감소는 2006년에 가나 수역에서의 어획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이 수역의 기후 변화와 높은 유류비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됨

- 프랑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다랑어 통조림 수입이 많은 나라이며 최근 수입량은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었음
 - 코티드브아르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에 급감하여 2006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세이셀로부터의 수입은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2005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수입은 2005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프랑스 수입(다랑어 통조림)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코티드브아르	33.4	41.0	30.3	33.7	21.6	23.1
스페인	15.2	13.8	19.1	18.6	21.8	22.0
마다가스카르	9.3	10.0	14.4	12.9	14.7	15.4
세이셀	8.6	11.0	12.6	14.7	11.3	14.7
이탈리아	3.6	6.2	9.8	7.3	8.0	8.9
세네갈	4.9	6.7	6.9	4.9	4.3	1.1
기타국	15.9	28.7	22.7	15.0	28.9	35.2
총합	90.9	117.4	115.8	107.1	110.6	120.4

- 독일의 다랑어 통조림 수입은 8만 톤으로 여타 EU국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독일은 매년 다랑어를 개인당 2kg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랑어 통조림은 주로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특히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4년에 5천 톤에서 2005년에 1만 1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만 6천 톤 정도로 급증하였음

【 독일 수입(다랑어 통조림) 】

(단위: 천톤)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필리핀	20.5	28.5	29.4	19.1	20.3	23.4
에콰도르	2.2	4.1	4.8	13.7	14.6	15.8
태국	5.1	9.3	9.6	5.6	11.5	18.1
파푸아뉴기니	2.0	5.2	8.7	10.7	9.6	4.4
인도네시아	1.3	2.1	2.7	3.5	7.0	6.0
세이셀	6.9	8.2	10.6	5.4	6.6	6.7
프랑스	9.2	16.8	13.7	7.3	5.7	2.2
기타국	21.3	11.5	12.2	15.9	8.5	10.2
총합	68.5	85.7	91.7	81.2	83.8	86.8

■ EU 지역에서 다랑어에 대한 높은 수요

- 전세계적인 다랑어 자원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해 최근 다랑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하지만 더 이상의 다랑어 가격 상승은 다랑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EU 다랑어 업계 관계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국가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베트남이 다랑어 통조림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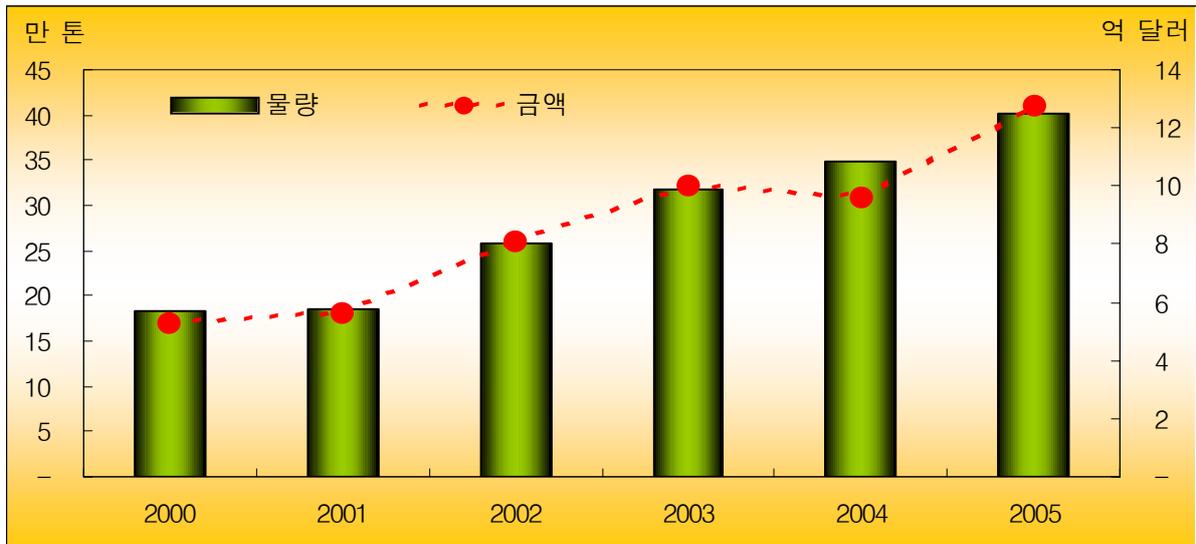


주요뉴스와 분석

■ 미국 FDA, 중국산 양식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 실시

- 지난 6월 28일에 미국 FDA(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산 양식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것을 발표하였음
 - 원인은 중국의 일부 양식수산물에서 사용금지 약품이 검출되어 기타 수산물에서도 유해물질 발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수입 금지된 품목은 주로 메기, 농어, 새우, 뱀장어 등 양식수산물임
- 한편 미국은 중국의 2대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40만 톤, 12억 7,300만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16.9%, 19.3%에 달함
 - 주요 수출 품목은 킬라피아, 대구, 뱀장어, 새우류 등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 실적 】



자료: 중국수산물수출입통계연감

- 이처럼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부 국가에서도 중국산 양식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중국산 양식수산물이 그만큼 안전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일본 치바현의 지역산 어류 배송사업, 소매점 및 소비자에게 호평

- 치바(千葉)현이 아침에 양륙된 신선한 수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2004년부터 시작한 '신선한 치바 생선' 직송추진사업이 소비자의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은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2007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설치를 통해 사업의 정착을 도모함
- 지역산 수산물 직송추진사업에서는 아침에 현내 어항에 양륙된 정치망, 선망 등의 어획물을 산지 중매를 통해 그날 중에 소비지공설도매시장으로 보내고, 소비지시장에서는 도매, 중도매를 거치게 됨
 - 소비지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에 거래를 하여 오후부터 저녁시간대 판매에 맞추어 슈퍼 등 소매점에 도착하게 하는 구조로
 - 지금까지 공설중앙도매시장을 경유한 시범사업에서는 소비자와 소매점의 평가도 순조롭고 판매를 희망하는 소매점도 증가하고 있음
- 시범사업은 각 연도별로 다양한 경로를 실험하고 있는데 대체로 평가가 좋은 편이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 예정했던 생선이 어획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도매시장의 경우 담당자가 경매 등 오전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송사업을 위해 오후까지 대기상태에 있어야 해 인력 배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치바현은 향후 제시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고자 협의회를 설치하여 꾸준히 검토해 나갈 예정에 있음
- 치바현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 신선 수산물의 배송사업은 수산물의 신선도를 차별화 전략의 매개체로 삼은 것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중에서도 일부 거래는 실제로 정착되고 있어 수산물의 판매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볼 만한 사례임

■ 미얀마, 식품신속경보시스템 설치에 박차

- 미얀마 정부는 식품 안전 기준을 통해 수산물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어류와 수산물에 대한 식품긴급경보시스템 구축 할 예정으로 있음
 - 미얀마는 현재 식품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지역 수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출 절차를 변경하였음

- 지난 6월 12~14일 동안 방콕에서 EU의 식품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 미얀마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미얀마는 27년간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으며 수산물 안전에 관해서는 여타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시스템을 통해 수산물 안전 시스템의 실행을 시작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신속경보시스템 설치를 계획 중이라 밝힘
 -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EC로부터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받을 것으로 밝혔음
- 이러한 식품신속경보시스템 하에서는 식품에 대한 검역을 통해 오염된 식품 수화물을 선별하여 즉시로 그 식품의 원산지를 밝힐 것임
 - 이러한 신속한 발표를 통해 오염된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게 하며 아울러 해당 국가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음
-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EU의 식품긴급경보시스템 같은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국 요구에 부합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세계 각국에서는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체유해물질 발생 정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된 수산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체제와 관리 구축에 관심을 높이고 있음



지역 포커스

■ 1~6월 푸젠성, 대만산 활어 수입 115배 증가

- 1~6월, 푸젠(福建)성 동산(東山)시는 대만산 활어를 약 500톤 수입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대만으로의 활어 수출량은 320톤에 달하였음
- 지난해 푸젠성과 대만의 수산물 교역량과 금액은 각각 4만 톤, 1,615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 지난해 동산항에 대만수산물집산센터를 건설한 이후 대만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후베이성, 미국으로 붕메기 수출 1만 톤 돌파

- 올해 붕메기 주문량이 1만 톤을 돌파하였는데,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후베이성은 붕메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에 '붕메기 산업화 발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미국, EU, 동남아 등 국가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였음
 - 이로써 붕메기의 양식면적은 8만 m²에서 30만 m²로, 생산량은 1,000톤에서 1만 8,000톤으로, 수출량은 1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 홍콩, 일본산 수산물서 비소 과다 검출

- 홍콩의 일부 대형할인마트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9개 샘플 중 8개 샘플에서 비소 잔류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음
 - 검사 품목은 오징어, 대구 등으로 비소 잔류치가 kg 당 0.1~2.5mg이었는데, 이중 오징어의 경우 잔류치가 기준치의 24배에 달하였음
- 이에 대형할인마트에서는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기로 하였음

■ 치바현 근해저인망어업인, 어선 소형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 나서

- 치바현 근해저인망어업자는 공동으로 어선 소형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자 국가의 어선어업구조개혁종합대책사업에 참여하기로 계획함
 - 치바현의 74톤급 근해저인망어업 4척이 '초시 근해어업생산조합'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 중 1척을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19톤급 소형어선으로 건조하기로 함
- 치바현 근해저인망어선은 대체로 노후화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비용 소모가 커 경영 안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 관련 어업인은 어선 소형화를 통해 인건비 등 제비용을 절감 함으로써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와테현 생산자연대, '이와테 브랜드' 확립 위해 연대

- 이와테(岩手)현 농림어업 3개 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이와테현 본부, 이와테현 삼림조합연합회, 이와테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마케팅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에 합의함
 - 3개 단체는 로고 및 캐치프레이즈의 통일, 상품 개발, 판로 확대, 환경 보전 등의 연대를 통해 '이와테 브랜드' 및 친환경적인 산지의 확립을 도모하기로 함

■ 일본 냉동식품협회, 자연해동조리냉동식품의 취급요령 작성

- 일본 냉동식품협회는 최근 몇년간 제조·판매량이 증가한 자연해동조리냉동식품의 취급요령을 종합하였음
 - 자연해동조리냉동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상 무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분류되는 조리냉동식품 또는 냉동가열식육제품으로, 자연해동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락용 반찬을 주 목적으로 개발,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품임
 -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락용 자연해동조리냉동식품의 경우 섭취방법을 고려해 볼 때 제조과정 상 세균 등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음
- 취급요령에서는 섭취 시 세균수 기준치를 설정하는 동시에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실시요령에 근거한 실험을 요청하고, 또한 상품에는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간추린 지구촌 소식

■ 베트남, 근해 어업 효율 증대 위해 940만 달러 투자

- 베트남 수산업계는 근해 어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940만 달러의 초기 투자 자본을 투자할 예정에 있음
 - 이를 통해 젊은 어선종사자들에게 수산 관련 기술 습득과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 대학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 줄 것이며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선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임

■ 말레이시아, 세계 각국과 수산 협력 강화

-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 이란과 수산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이탈리아와 공동 협력에 대하여 모색 중에 있다고 밝힘
 - 양국은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목표로 위원회 설립에 이미 동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현재 이탈리아의 양식 산업 기자재와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물 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태국, 미성년 노동력 착취 혐의를 부인

- 최근의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새우 연합회는 태국이 새우를 가공할 때 미성년 노동력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였음
 - 하지만 태국 노동부(Labour Ministry)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국은 노동자 보호 법령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 칠레, 민대구 쿼터량 삭감에 반대 시위

- 칠레 수산부(Subsecretariat of Fisheries)의 지난 6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국립 수산위원회가 민대구의 자원량 감소를 우려하여 올 해 쿼터량 삭감을 심각하게 고

려하고 있다고 함

- 올해 민대구의 쿼터량을 62,100톤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90% 수준임
- 한편, 어업인들은 Region III지역의 시청 앞에서 민대구 쿼터량 삭감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며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Talcahuano와 Coronel 지역의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에콰도르, 대미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해 미국과의 FTA 추진 원해

- 에콰도르 어업인들은 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대미 수산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함
 - 현재 미국의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퇴치법」이 2001년 발효되면서 에콰도르가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무관세 또는 무쿼터를 적용받게 되나 다랑어(기름에 담긴 것)은 최대 35%의 수입 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 또한 안데스 관세 특혜 및 마약퇴치법의 유효 기간이 8개월 연장되면서 2008년 2월부터는 새로운 특혜관세가 부과되어 다랑어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포르투갈, 양식장 시설로 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

- 포르투갈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ries)는 스페인의 페스카노바 업체로부터 1억 3,5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해 미라(Mira) 해역에 터봇 양식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 본 프로젝트에서는 축양장을 포함해 양식 시설을 통합적으로 갖추게 되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양식 생산물의 99%는 EU 및 역외국으로 수출할 계획임